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니즈(needs)와 여가교육: 예비 특수교사의 교육경험을 기반으로

이예다나¹ · 최아론² · 임진선³

¹백석대학교 · ²우석대학교 · ³우석대학교

A Study on Needs and Leisur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Achievement of Below Basic Proficiency Level

Based on Educational experiences of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Lee, Yedana¹ · Choi, Aron² · Lim, Jinsun³

¹Baekseok University · ²Woosuk University · ³Woos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support needs of students, as recognized by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who have experience teaching students with achievement of below basic proficiency level. For the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analyzed using a consensu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pre-service special teachers for students below basic proficiency level was derived into four subject areas and eleven core contents.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tudents and confirmed that environmental factors were related to their performance. They also found that academic, emotional, and leisure support demands were needed. Furthermore, teaching efficacy increased, and practical support plans were explored. Finally, to strengthen the teaching competency of pre-service special teachers,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al experience students performing below basic proficiency level and support for them should be prepared with a multi-tier system.

Key words : students with achievement of below basic proficiency level,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education experience, needs, leisure education

주요어 : 기초학력미달 학생, 예비 특수교사, 교육경험, 니즈, 여가교육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im, Jinsun

E-mail: jinsunlim@woosuk.ac.kr

Received: May, 7, 2024 Revised: June, 3, 2024 Accepted: June, 18, 202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는 교육계 전반에 나타나며 2019년 교육부는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평균 2012년 2.2%에서 2022년 11.1%로,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평균 2012년 3.0%에서 2022년 10.8%로 증가하였다. 이른바 ‘코로나 세대’에 해당하는 초중고교생의 학력 저하에 대하여 국가-시·도-학교 간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김남식, 임광국, 2021; 신하영, 박소영, 2023; 이에다나, 고혜정, 2023; 이에다나, 손승현, 2022).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학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업 내 소외,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고 나아가 자아개념, 효능감, 행복감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의 어려움, 과도한 긴장과 불안감으로 심리적 안전감을 나타내기도 하며 사회성 부진에 이르기도 한다(유지혜, 2023).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교육 기본권이자 국가적 차원의 책무이다(이에다나, 고혜정, 2023). 정부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으로 ‘진단-지원-예방-기반’을 핵심과제로 수립하였으며 현재 교육 현장은 촘촘하고 체계적인 학생지원 안전망을 강조하며 일반교육에서 교육사각지대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 혹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또는 기초학력 미달은 아니지만 학업 및 정서적인 어려움을 지닌 학생들 역시 교육적 지원을 받아야 하며 현 교육의 패러다임 또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되고 있다(이에다나, 고혜정, 2023).

학업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어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지닌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2019년 기준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20위,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를 기록하였다(김소영, 윤기봉, 2016; 염유식, 김경미, 2019; 이유평, 원성준, 2021; 통계청, 2020). 구체적으로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업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업 성취가 낮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은 자신감과 동기가 낮으며, 낮은 수준의 행복감, 안정감을 경험하고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들이 학교환경 전반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노력으로 학교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생활적응은 여가활동 참여와도 상관관계를 지닌다. 여가활동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사회화, 학습에 있어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심리적 행복감, 안녕감, 심리적 웰빙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민경훈, 김수겸, 2008; 임혜경, 박재국, 김은라, 2014). 여가활동 참여는 학생들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에서 나아가 학교 수업에서도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다만, 현재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인지적 학습과 자존감, 학습동기, 사회-심리-정서적 지원, 시간관리 등 행동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다(안지연, 김귀옥, 류희선, 이은진, 최성희, 2020).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들을 다각도에서 탐색하고 실질

적인 지원 요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진단하고 지원하며 예방적 차원의 접근으로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 교사들이 갖춰야 하는 자질 중 하나이다. 또한 특수교사는 다양한 특수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기관의 특성상 역할의 차이를 지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교육봉사 튜터링의 형태로 대학생과 학생이 정기적으로 만나 기초학습, 교과 지도 등 다양한 유형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박혜경, 2016; 신은혜, 박현정, 김대원, 2022). 또한 대학생 멘토링은 멘티 학생들의 학업 지원 뿐 아니라 심리·정서·여가적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예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특수교육기관 교육 봉사에 대한 경험만을 다루었다(이미숙, 2011; 이정은, 2019; 이해란, 박창언,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교수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교육경험을 통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특성과 지원 요구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비특수교사들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갖춰야 하는 역량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있는 방향을 제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표집방식을 활용하여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특수교사들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대학생 멘토링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을 경험한 학생들이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였

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장학급(대청교)에 선발되어 지역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멘토링을 수행한 학생들이다. 해당 지역의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교과 학습 지도가 주요한 내용이지만, 학기 당 1 회 다양한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참여자 중 50%만이 교육봉사를 경험하였음을 응답하였으며, 그 중 특수학교에서의 교육봉사 경험은 한명이었고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환경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한 경험은 없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배경 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정보

| 참여자 | 성별 | 학년 | 멘티 학생 학교급 | 교육봉사 경험 |
|-----|----|----|-----------|---------|
| 1 | 남 | 2 | 중 | 무 |
| 2 | 여 | 2 | 초 | 유 |
| 3 | 여 | 3 | 초 | 무 |
| 4 | 여 | 3 | 초 | 무 |
| 5 | 여 | 4 | 초 | 유 |
| 6 | 여 | 4 | 중 | 유 |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1) 연구팀 구성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학과 교수 1인과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육 경험이 있는 교수 2인까지 총 3인으로 구성하였고 이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에서 제시하는 연구팀 구성 방식에 근거하였다. 연구팀은 연구목적과 연구 문제를 명료화하고, 선행연구 탐색, 면담계획안과 질문지 작성, 면담 진행, 자료의 교차분석과 구조화 작업을 하였다.

2) 면담 질문지

면담을 위하여 교육봉사와 예비특수교사 교육경험과 관련된 선행 연구(김라경, 최민식, 2023; 이정은, 2019; 이해란, 박창언, 2020)를

기반으로 질문지 초안을 만든 뒤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면담의 주제는 예비특수교사가 인식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특성과 환경 요소, 이를 기반으로 한 지원 요구 파악 및 교육경험을 통한 효능감 및 지원요구 등이었다.

표 2. 면담 질문지

| 질문문항 | 주요 질문 내용 |
|------|-----------------------------------------------------------------------------------------------|
| 시작 | 성별, 나이, 학년, 멘토링 참여 동기, 참여 기간 등 |
| 도입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및 프로그램 파악 |
| 핵심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특성, 지도하면서 알게 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특성, 주변환경, 전반적인 학교 생활, 필요 지원, 어려웠던 점, 주요 지원 요구, 해결 방안 등 |
| 종결 | 교육 소감, 보충 의견 등 |

3)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Giorgi(2004)가 제시한 4단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1단계인 계획단계에서는 연구목적을 수립한 뒤 대상자의 범위를 선정하여 면담 질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해당 계획 단계에서 연구진은 교육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예비 특수교사의 인식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나열하고 질문을 구체화하였다. 2단계인 모집단계에서는 편의표집을 통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한 뒤, 주제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3단계인 진행단계에서는 연구진이 진행을 하며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두 번의 면담 질문과 대화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4단계인 분석단계에서는 연구진이 개별 및 교차분석을 하며 전사 자료를 통해 나타난 응답을 정리하였다.

자료수집 계획단계를 통하여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 특수교사 중 6명을 대상으로 각 2회씩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연구 시작 전 충분한 라포

를 형성하고 계획 단계에서 만든 반 구조화된 면담 주제를 중심으로 일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1차 당시 평균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그 뒤 심층 자료 수집을 위하여 추가 면담에서 평균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심층적인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는 Hill(2016)이 제시한 CQR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합의적 질적연구는 Hill, Thompson과 Williams(1997)가 소개한 방법으로 현상학적 방법과 근거이론적 방법을 기초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며, 연구자와 합의자간의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합의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신은혜, 박현정, 김대원, 2022; 임운서, 2021). 합의적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내면을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다는 질적 연구의 장점과 실증주의 관점에서의 연구자와 팀의 이중분석 및 귀납적 방식의 엄격성을 더해 합의에 도달하는 연구 방법이다(Hill, 2016). CQR은 귀납적으로 접근하여 개인의 내적 경험을 연구하는데 이상적이며 다양한 해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객관화하여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지승희, 오혜영, 2013; Hill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전사한 내용을 여러 차례 읽으며 개방코딩과 축코딩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교차분석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특성과 교육경험을 통해 제시하는 지원 요구 등을 분석하였다. 그 뒤 Hill et al.(2005)이 제안한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 참여자 6인 중 5인 이상이 보고한 핵심내용은 '일반적(general)', 3~4인이 보고한 핵심내용은 '전형적(typical)', 1~2인이 언급한 핵심내용은 '변동적(variant)'으로 분류하였다.

Ⅲ. 결과

본 연구는 CQR 질적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예비 특수교사들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교육 경험을 통한 인식과 지원 요구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주제영역과 11개의 핵심내용이 도출되었으며 4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특성 (2)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관련된 환경 요소 (3)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지원 요구 (4)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을 통한 경험과 지원 방안이다.

표 3. CQR 분석에 따른 질적 분석 결과

| 주제 | 핵심내용 | 결과(빈도) |
|-------------|----------------------------------|--------|
| 학생 특성 |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함 | 일반적(6) |
| | 학습 내용 자체에 무기력함 | 일반적(5) |
| | 쉽게 흥분하거나 잘 못 어울림 | 전형적(3) |
| 환경 요소 | 가족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침 | 변동적(2) |
| |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고 체육 등 외부 활동에 소외감을 느낌 | 일반적(6) |
| | 주변 교사들이 학생의 능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나타냄 | 변동적(2) |
| 지원 요구 | 학생 수준에 맞는 문제집 혹은 학습 자료로 공부하기 원함 | 일반적(6) |
| | 주변에서 독려해주고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기를 원함 | 전형적(4) |
| | 미래 목표를 나누거나 게임, 놀이 등 함께 활동하기를 원함 | 일반적(5) |
| 효능감 및 지원 방안 | 학습전략 적용 방안, 자존감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경험함 | 전형적(4) |
| | 여가 활동 지원 확대 인식 | 일반적(6) |

1.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특성 파악

1) 학업적 특성 파악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하여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일반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물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지만, 현재 기초학력이 교과 내용 전

반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식하게 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예비특수교사로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장애학생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단계의 지원 요구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공부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학습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학 과목의 경우 다른 과목들보다 훨씬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국어와 사회와 같은 흔히 문과에서 배우는 과목으로 알려진 과목들은 원래 학년보다 1~2학년 정도만 뒤쳐졌던 반면, 수학은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참여자 3)

“초등학교 3학년임에도,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학습지에 집중하지 못하며, 여백에 잔인한 낙서를 그리고 역할극을 하듯이 교사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여자 5)

2) 학업 동기 파악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학업 동기가 낮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부분에 ‘일반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학습 부진 혹은 학습장애에 위험군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할 때, 이들이 학업에 있어 반복된 실패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은 학업적 지원에 있어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예비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들이 학습된 무기력을 보인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학업 동기가 낮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예비특수교사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교육으로 비장애 학생의 학업 동기에 대한 측면도 파악하게 되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자신이 성과를 못 내리라 생각하지만 열심히 독려

하면 성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취를 과하게 대단시하고, 다시 어려운 문제에 가로막히면 "역시 내가 아까 한 건 우연이었어."라며 다시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참여자 2)

"공부에 동기가 없는 학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를 찾아주려고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은 있는지, 꿈은 뭔지, 이런 진로와 같은 부분에 대해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꿈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를 위해 준비해둔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와 닿아하지는 않아보였습니다." (참여자 6)

3) 사회·정서적 특성 파악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부분에는 '전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중 일부 학생들은 또래에게 무시당하거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 시, 교우 관계에는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던 반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화를 하던 중에 쉽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룹으로 진행할 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존심이 무척 강하며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본인이 완벽하게 맞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틀렸다고 체크이 되었을 때, '이거 맞는데요?'라며 반박을 하거나 다시 풀어볼 것을 요구해도 계속 반박을 하며 본인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풀이과정을 돌아보면서 답을 구했을 때는 본인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짜증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참여자 1)

"초기 또래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환경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올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 공격 행동 등 문제행동을 보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학생을 만나며 점차 문제행동의 빈도가 낮아졌으나 현재 종종 해당 문제 행동을 보이며 또래와의 관계 혹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빈도가 잦아졌었습니다." (참여자 5)

2. 주변 환경 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미

1) 가족환경 요인 작용 인식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관련하여 가정환경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는 '변동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학생들의 학업에 있어 가정학습정도나 사회경제적 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형제자매가 동일한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며 형제자매 모두 기초학력 미달을 보인다는 것을 통해 참여자들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학부모가 학생에게 구몬과 같은 학업을 지원하지만, 학업 능력이 어떤지 관심이 없다고 들었어요. 대상 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학습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부모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개념도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지만을 지원하였다고 센터 선생님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참여자 1)

2) 학교생활에 무기력하고 소외감을 느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학교생활 전반에 무기력하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부분은 '일반적' 빈도를 나타냈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학교생활에 크게 흥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학교생활 자체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체육 등의 외부활동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예비특수교사들이 장애학생 뿐 아니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생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애정 결핍과 피해망상이 존재하는 듯 하였습니다. 학생의 주변 친구들은 학생과 함께 놀다가도 학생의 자격지심에 지쳐 함께 놀고 싶어 하지 않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참여자 2)

“학생이 꿈도 없었고 미래에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공부 자체에 흥미를 붙이지 못했지만 생활 전반에 무기력해 보였고 이런 점이 더욱 학생의 학업능력을 낮춘 요인인 듯 했어요.” (참여자 3)

3) 주변의 부정적인 태도 인식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하여 센터 교사나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변동적’ 빈도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주변의 인식과 나아가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예비특수교사들이 기초학력 미달과 이들이 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특수학급이나 통합교육 현장을 파악하고 교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들은 영똥하고 재미있는 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생각이 없다며 공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영어 프로그램에서 또래 교수로 짝꿍을 정하는 시간에도 대상 학생에게 ‘공부를 못하니까 알려줘도 못 할 것이다’라며 말하며 짝 선택에서 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참여자 1)

“센터의 학생들이 ‘언니는 못하잖아’같은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따돌림이거나 괴롭힘같은 느낌보다는 투닥거리며 나오는 장난의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학생의 능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있어 보였어요.”(참여자 4)

3. 지원 요구에 대한 인식과 의미

1) 학업적 지원 요구

연구 참여자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일반적’ 빈도의 의견을 나타냈다. 연구 참여자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기초 문해력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제공받은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어주면 된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수준에 맞지 않은 문제집을 풀기 때문에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수학 과목에서 두 자릿수 덧셈 문제를 풀었는데 그 교재를 다 풀었다며 큰 수의 덧셈과 곱셈을 하는 단원의 문제집을 가져와 풀었습니다. 성취를 보았을 때 두 자릿수 덧셈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는데 곱셈을 풀자고 하니 많이 높은 수준의 문제집을 사용했다고 생각했지요. 나이나 학년에 맞는 교재로 진행해야 했는데 센터에 구비되지 않아 어려웠습니다.”(참여자 2)

“학생이 문제 푸는 것을 어려워해서, ‘이 방법을 쓰면 조금 더 쉬울 것이다’라고 알려준 부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을 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할 때 ‘않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문제를 풀어간다거나, 두 자릿수 덧셈에서 가로로 문제를 풀면서 늘어난 십의 자리 수를 올리는 것을 자주 잊어버려서 세로로 문

제를 푸는 방법이나 올림이 필요한 수를 숫자 위에 적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이런 부분을 혼자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학습전략을 알려주고 그 전략을 사용해서 문제를 다시 푸는 연습을 하도록 하자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참여자 6)

2) 정서적 지원 요구

연구 참여자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성취에 대한 칭찬과 인정, 격려 등 정서적 지원을 요구한다는 것에 ‘전형적’ 빈도의 의견을 나타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학업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심리적으로도 격려와 정서적 지원을 지각하지 못하여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학업성취에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은 중요한 변인이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학업으로 인하여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예비특수교사들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단순히 학업적 지원이 아니라 성취에 대한 피드백, 보상, 정서적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해야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을 받을 때마다 ‘하기 싫어요.’ ‘나는 원래 공부 못해서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공부에 위축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자주 보이곤 했었으나 학습과 정서적 지원을 통해 학습하는 습관이 익숙해졌어요. 또래에 비해 부진했던 공부로 인해 위축되었으나 학습의 결과가 향상되자 점차 자신감이 붙었고 자아성취감을 보였어요. 학습결과가 좋아지니 몰입하고 집중하며 학습에 흥미를 점진적으로 보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 양상을 보였습니다.”(참여자 4)

“공부 시간을 싫어하고, 놀고 싶어서 5분마다 “물 마실래요.”라는 말을 자주 하는 학생이었으나, 칭찬과 함께 학습을 진행하니 물 마시고 싶다는 말과 함께 회피하는 모습

을 보이지 않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100점 맞은 시험지를 집에 가지고 가 부모님께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부모님께서 좋아하셨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학생도 굉장히 뿌듯해하며,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참여자 6)

3) 여가 지원 등 다양한 활동 요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체육활동, 여가 지원 등 다양한 활동 요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일반적’ 빈도의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 뿐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미래에 대한 상담이나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를 통해 예비 특수교사들은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단순히 학업적 지원이 아니라 학업-상담-여가 활동 등의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수행할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교수 전략과 보드게임을 통해 수행하거나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놀이나 게임을 같이 병행하여 진행한다면 보다 학습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학생이 비록 수학 및 기타 학습적 영역에서 어려움을 나타내었지만, 체육 구기 종목과 같은 신체 활동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참여 후에는 학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공부 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참여자 4)

4. 교수효능감 향상과 지원 방안

1) 교육경험으로 교수효능감이 높아짐

연구 참여자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교육한 뒤 교수효능감이 높아졌다는 것에 ‘전형적’ 빈도를 나타냈다. 이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개별화 교

육의 필요성과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교사로서 교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교수적 수정의 필요성 및 교육과정 적용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특성을 새롭게 인지하며 교사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다.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았다고 하면 거짓이지만 기초학력 미달을 나타내며 가정에서도 돌봄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을 타인인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봤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중요하지만 해당 학생이 자존감을 높이고 또래집단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참여자 2)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지도를 해볼 좋은 기회였어요. 전공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할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단순히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생의 집중력과 학업에 있어서의 의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습 전략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집중력이 좋지 않은 학생을 가르칠 것인지, 학생에게 어떻게 학업의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였습니다.”(참여자 3)

2)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

연구 참여자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일반적’ 빈도로 의견을 나타냈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하여 예비 특수교사들이 그 의미를 현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과 지침이 미흡하다고 여겼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나 장애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도

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기초학력이 무엇인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보이는 특성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잘 몰랐고 교수적 필요하다는 생각도 없었으며 교수법도 잘 몰랐습니다. 이전에 학생이 오류를 보이면 단순히 그 오류를 무작정 교정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지도하였어요. 정확히 어디서 어려움을 보이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하나도 몰랐고 진정으로 잘 몰랐던 기초부터 교육하는 것을 무시하였어서 무지했던 모습이 학생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앞으로 현장에 나가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기초부터 탄탄히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부터 옹기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참가자 4)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교수한 경험이 있는 예비특수교사들이 인식한 학생들의 특성과 지원 요구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6명의 예비특수교사들을 면담하고 이를 CQR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주제와 범주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 지도 경험의 중요성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인식은 살펴본

결과 예비 특수교사들은 기초학력에 대하여 정확한 의미나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단순히 읽기와 쓰기를 못 하거나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기초학력 대상 학생을 지칭 하던 다소 부정적 어감의 용어들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학습지원대상’으로 통칭하고 있다(교육부, 2022).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며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김중훈, 정평강, 2019; 이대식, 2015; 이에다나, 고희정, 2023; 전지혜 외, 2022). 또한 기초학력이 미달 학생들의 개인별 맥락과 다양성을 고려한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은 전 교과 영역에서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유은정, 이태경, 2023). 따라서 현장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함에 있어 기초학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여 모든 학생들이 현장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예비 특수교사들의 교육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와는 달리 다양한 특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특수교육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자에 대한 교육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예비 특수교사들의 교육경험은 저학년 시기부터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경험을 통한 학습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협력적 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예비교사들이 1학년 부터 다양한 교육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 단계에서부터 교육부와 관계 기관인 지역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지원해야 한다(김라경, 최민식, 2023; 윤소희, 2019).

2. 학생의 환경적 요소에 인식 제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단순히 학업 성취에 있어 어려움에서 나아가 좌절, 실패, 열등감, 흥미, 자아존중감 결여 등의 모습을 타나낸다. 이러한 모습은 학업 성취는 개인 변인에서 나아가 부모의 지원, 학교생활 변인, 가정 배경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김경애 외, 2020; 박미희, 2020)와 자아개념이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관련성을 지니며 학업 노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동일, 임진형, 2020; 양희용, 박용한, 2023)와 관련성을 지닌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학습문제와 따돌림으로 인하여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며 부정적인 자기개념은 교사와의 관계,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도 단순히 학습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학습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이 동시에 필요했다는 결과들이 있었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 학생들이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로 이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원성준, 강태림, 김신혜, 2023).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개인변인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소에서도 결핍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스트레스 대처에 필요한 자아탄력성이나 학교생활적응에 필요한 적응유연성 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적응유연성은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에게만 요구되는 능력이 아니며 모든 아동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김주환, 2011; pleux, 2012). 학업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학습 상황에서의 잦은 실패와 부정적 정서경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여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최옥희, 최병원, 2014). 따라서 기초학

력 미달 학생들에게 단순히 학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배경 변인이나 환경적 요소를 확인하고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며 심리적 안녕감 및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는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학습부진 및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최옥희, 최병원, 2014). 그러므로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체육 활동 뿐 아니라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교육경험 관련 과제와 실천적 고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교수는 개별화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실천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러 연구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단순히 반복학습이나 학습지를 풀어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원이나 신체 활동 등을 함께 제공하였을 때 학생들의 도전행동이 줄어들고 학업에 있어 만족감을 느꼈다는 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 교육활동이 원인과 진단 위주의 사회 처방적인 접근보다는 다차원적으로 접근 방안을 고려하여 개별 학습자의 특성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맥락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McNiff, 2013; Pokropek et al., 2018).

따라서 우리는 여가교육적 차원에서의 접근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현재 여가활동은 단순히 유희로만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현대사회의 필수 교육으로 인식되어야 한다(지현진, 2010). 또한 여가활동과 연계한 교육적 차원의 접근은 학습자의 동기부여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김성일, 2003). 따

라서 최근 연구들은 여가활동을 교육적 차원에서의 활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교육 내에서 적용하거나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설계하는 등의 실질적 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이문진, 2019), 그 방안 마련을 적극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활동적 여가활동에 치우쳐 있고, 저비용의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는 특색들을 가축 있기에 여가의 틀을 다시 모색 해봐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가영, 2014).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교수의 개별화된 지원이나 다양한 방향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여가활동과 연계한 여가교육적 차원의 접근과 실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4. 교사효능감 신장과 교육 지원방안

예비교사들에게 교육경험은 교원양성기관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의의를 지닌다. 또한 교육경험은 예비 교원들의 현장역량을 강화하고 수업전문성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예비 특수교사들은 교육경험을 통하여 교사효능감이 높아짐을 경험하였고 실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탐색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사실, 예비 특수교사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비롯하여 교육사각지대에 놓은 학생들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으며 실제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지원의 차원이 아닌 장애라는 진단명을 기반으로 접근하여 개별화된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따른다. 뿐만 아니라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예비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와 함께 협력하여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유은정, 이태경, 2023). 그러므로 예비 특수교사들이 기초학력 미달 학

생들을 교육하는 경험은 교수방법 및 교수전략과 관련하여 교사효능감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과 대학 간의 지속적 연계가 필요하며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교사교육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현직 교사 뿐 아니라 예비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 대해서도 변화 요구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김재운, 2023; 김재운, 이동성, 2020). 따라서 단지 학업적 지원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하였듯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이들의 내용 지식과 경험이 반복적이고 누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방안이나 행·재정적 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예비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교육한 경험을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해당 연구는 예비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업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을 교수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목 운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거나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단순히 학업적 지원이 아니라 학업-정서-여가 활동이 연계된 다차원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예비 특수교사들의 인식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았으나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수가 6명으로 그 수가 적어 질적 연구의 보편적 한계인 일반화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추후에는 멘토링 프로그램 일지를 분석하거나 예비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인식에 대한 설문 등을 함께 살펴본다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인식의 차이, 지원 요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비 특수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현재 기초학력미달 학생 등 학업에 어려움을 지니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들을 대상으로 지원 체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당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요구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다면 이들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가영(2014). 한국인의 여가 양적·질적으로 미흡하다. LG Business Insight.
- 교육부(2022.6.13.).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 전략 발표 보도자료. 세종.
- 교육부(2022.10.). 제1차 기초학력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정책(2023~2027). 교육부. 세종.
- 김경애 외 (2020).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연구보고 RR 2020-23).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동일, 임진형 (2020). 청소년의 자기개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매개효과: 학습부진 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학습장애연구*, 17(3), 107-128.
- 김라경, 최민식 (2023). 특수학급 봉사학습에 참여한 예비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경험과 인식 및 지원 요구. *통합교육연구*, 18(2), 99-121.
- 김소영, 윤기봉 (2016).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 연구*, 27(2), 271-296.
- 김성일(2003). 교육적 여가와 여가적 교육. *한국교*

- 육학연구, 9(2), 143-162.
- 김자경, 김주영, 정세영(2008). 방과 후 학교 자원 봉사활동 경험을 통한 특수교육전공 대학생의 장애아동과의 상호작용 및 교육적 지원 모색에 관한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 연구**, 51(3), 101-117.
- 김재운 (2023). 초등 예비교사들의 학교 현장 연계 교직과목 수강 경험과 그 의미: 현장 기반 교사 정체성 및 행위 주체성 형성. **초등교육연구**, 36(4), 1-27.
- 김재운, 이동성 (2020). 초등 예비교사들의 학습문화 형성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교원교육연구**, 37(3), 161-187.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위즈덤하우스
- 민경훈, 김수겸 (2008). 직업군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 및 심리적 행복감의 인과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4), 21-32.
- 민윤경, 문희원 (2021). 한국·캐나다·핀란드의 기초학력 보장제도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31(4), 35-59.
- 박미희 (2020).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4), 113-145.
- 박혜경 (2016). 대학생 멘토가 역할 수행 과정에 겪는 어려움에 관한 질적연구. **교양교육연구**, 10(3), 141-177.
- 신은혜, 박현정, 김대원 (2022). 대학생의 비대면 청소년 멘토링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열린교육연구**, 30(6), 307-333.
- 신하영, 박소영(2023).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교육정치연구**, 30(1), 1-30.
- 안지연, 김귀옥, 류희선, 이은진, 최성희 (2020).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미술과 교수-학습 방안 탐색: '즐거운 상상의 축제' 개발 과정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34(1), 180-209.
- 양희용, 박용한 (2023). 초등학생의 학업·비학업 자아개념, 학업성취 관련 변인,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 **초등교육연구**, 36(4), 109-144.
- 염유식, 김경미 (2019).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소자료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
- 유은정, 이태경 (202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과학과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대한 과학 교사들의 인식. **한국과학교육학연구**, 43(3), 265-276.
- 유지혜 (2023). 아동기 학습·사회성 부진의 영향요인과 심리적 안전감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연구**, 13(3), 39-59.
- 윤종대, 정철규, 윤필규, 노미라 (2009). 중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이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2), 125-134.
- 원성준, 강태림, 김신혜 (2023). 초-중학교 전환기 사회적 자아개념, 또래 관계, 심리적 안녕감의 종단적 관계. **초등교육연구**, 36(3), 393-419.
- 이문진 (2019). 초등예비교사를 위한 여가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가학연구**, 17(4), 123-139.
- 이미숙(2011). 특수교육전공 대학 신입생의 특수학교 자원봉사 경험의 의미. **정서·행동장애연구**, 27(3), 203-233.
- 이예다나, 고혜정 (2023). 기초학력 미달 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 **초등교육연구**, 36(3), 125-147.
- 이예다나, 손승현(202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 분석 연구: 국외 지원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장애연구**, 19(2), 25-49.
- 이유정, 원성준 (2021). 부모의 학업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공존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학업 성취에

- 서의 차이 검증. *교육심리연구*, 35(4), 583-607.
- 이정은 (2019). 특수교육전공 대학생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봉사학습의 경험 분석. *특수교육*, 18(4), 191-219.
- 이해란, 박창언 (2020). 예비특수교사의 특수교육기관 교육봉사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1), 165-188.
- 임혜경, 박재국, 김은라 (2014). 장애학생의 여가활동참여 실태 및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16(1), 339-363.
- 지승희, 오혜영 (2013). 상담 분야의 CQR 연구 동향: 2001~2010년 상담관련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4), 2327-2349.
- 지현진(2010). 교과과정 내 여가교육 실천을 위한 제언. *여가학연구*, 7(3), 97-110.
- 최옥희, 최병원 (2014). 적응유연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학습된 무기력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13(1), 97-113.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0). 2020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여성가족부.
- 최승숙, 서선진 (2022).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협력적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교사의 기초학력지원 프로그램 참여 사례 연구. *학습장애연구*, 19(2), 1-24.
- Giorgi, A.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김미영, 정승은 역). 서울: 현문사. (원저 1985 출판).
- Hill, C. E. (2016). *합의적 질적 연구: 사회과학 현상 탐구의 실질적 접근*(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12 출판).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